전주 효천지구 교통체증 해소되나?

시, 농협공판장-중인나들목 구간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본격 추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전주 효천지구 입주민과 삼천동·평화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삼천동2가 농협공판장-중인나들목간 도로확장 사업이 도로의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조만간 실시계인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삼천동 농협공판장 앞 세내교에서 모악장례식장과 해성교차로, 중인삼거리, 국도 21호선 중인나들목을 잇는 기존 3.4km 구간의 왕복 2차선 도로를 5~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9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도로확장 규모는 주변 도로의 여건과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량, 보행로 확보 등을 고려해 폭 20~25m, 왕복 6차로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삼천과 독배천, 모악산 등의 자연경관과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 등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사면과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목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도와 자전거도로도 생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평면교차로였던 삼천교앞 삼거리와 해성삼거리, 중인삼거리를 회전식 원형교차로로 바꿔 차량이 정차 없이 자연스럽게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효천지구 등 주변 도시개발 및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습 정체구간으로 관리되었던 해당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중인나들목을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 출·퇴근시간대 차량이 몰리면서 통행이 불편했던 전주박물관에서 우림교 구간 쑥고개길의 교통정체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도로확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2017년 1월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문화재 조사와 교통성 및 환경성 분석 등 각종 용역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에 맞춰 도로규모를 확정하고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교통정체를 해소로 전주 인근 생활권과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천변 산책로와 연결된 보행동선 구축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의 숙원이었던 이 사업의 원활이 추진되고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강한 향토기업 도약할 것"

전주벤처촉진지구, 기업지원 페스티벌 개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전주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강한 향토기업으로 도약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는 17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벤처촉진지구 기업지원 성과보고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발전협의회가 올 한해 지역 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추진해온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다.

또한,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오경아 (유)아이엘에스 대표 등 11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전라북도지사상, 전주시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도 수여됐다.

특히, 장관상을 수상한 오경아 (유)아이엘에스 대표의 경우 전라북도 여성기업인으로서 LED 조명과 헬스케어 기기 등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소공인 공동연구회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김광선 금광산업 대표도 이날 교류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발전협의회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간 협업을 위한 '소공인 공동 연구회'를 지원해 제품 공동개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공동개발 제품 중 '미니리세척기'는 시장 판매까지 이뤄지는 성과를 내는 등 소공인간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전주소재 금속소공인의 모임인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회장 김강석 미르기계 대표)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벤처촉진지구 기업지원 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중소 혁신형 기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기업들에게도 기업 및 기업제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재개관 축하행사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17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1년2개월 만에 문을 연 전시관의 재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관련기사 12면>

차량사고 수습사던 40대 뒤차에 치려 교량 아래 추락사

17일 오전 7시 10분경 익산시 용안면의 한 도로에서 A모씨(60)의 렉스턴에 치인 B모씨(45)가 교량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익산 용안파출소에 따르면 B모씨는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 교량 입구의 조형물을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B모씨는 뒤따르던 렉스턴 차량에 치인 뒤 사고 충격으로 교량 난간을 넘어 10m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B모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모씨가 B모씨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주유소 현금 훔친 일당 검거

주유소에서 현금을 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38) 등 3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경 군산시 B로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면서 피해자 C모씨(64)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절취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여 지난 16일 오후 8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은행에 두고간 돈 훔치다 덜미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두고 간 것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피의자 A모씨(55)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4시 37분경 전주시 완산구 B동 한 은행에서 피해자 C모씨(20)가 ATM기를 이용 후, 두고 간 현금 25만원을 절취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지난 16일 오전 10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A모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강석훈 기자

건축재자 훔친 피의자 붙잡혀

노상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피의자 A모씨(67)는 지난 10월 21일 오후 1시 13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노상에서 피해자 B모씨(56)가 보관중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6일 오후 4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강석훈 기자

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 붙인 전주시장 후보 친형 실형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웅 전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 이모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 지역 대학 캠퍼스 4곳에 김승수 전주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들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공모한 임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에게 벌금 25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역 언론사 기자를 통해 기사화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다른 남자 만나는게 화가 나" 여자친구 흉기 찌른 50대 검거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모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경 남원시 한 건강원에서 피해자 B모씨(53)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모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석훈 기자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들 정도"

심석희, 폭행 피해 눈물 고백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의 상습적인 폭행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17일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심 선수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마주친다는 두려움으로 법정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힘들게 출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선수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졌었다"면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강도가 심해졌고,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며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폭행을 당한 이유로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특정 선수로 인해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선수보다 못해야 하는데 기량이 올라가면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심 선수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어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주변에 알리면 선수 생활은 끝난다는 식으로 세뇌당했다"라며 "현재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죄를 저지를 수 없게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희망한다"고 했다.

심 선수는 이날 재판이 진행된 내내 눈물을 훔치며 진술을 이어갔다. 조 전 코치가 있는 피고인석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고 앞만 바라봤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석 달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내 이웃의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전주시, 재난대응 민간예찰단 구성 간담회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2기 전주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이 출범했다.

전주시는 1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2기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시가 선제적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내 지역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 아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한 민간조직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열심히 활동해온 제1기 단원들의 임기가 지난 11월 만료됨에 따라 각 동별 2~3명씩 총 70여명으로 2기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을 재구성하고 이날 처음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동절기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기 민간예찰단원의 활동기한은 오는 2021년 11월까지 3년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향후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게 될 예찰단원들이 쉽고 빠르게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사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남종희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이날 "재난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정, 우리지역에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예찰 및 신고 활동을 통해 선제적 재난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강원랜드 직원 "이이재 전 의원도 채용 청탁"

권성동 한국당 의원 4차 공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중 중요하게 분류한 명단 중에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이이재(59)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강원랜드 인사팀 직원 A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15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강원랜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채용 청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이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강원 동해·삼척 출마해 당선됐지만, 20대 총선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검찰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B씨에게 채용 청탁한 국회의원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고 묻자 A씨는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름을 말하라'고 하자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이이재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3년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당시 인사팀에서 작성된 엑셀 파일을 제시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